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유사-유물의 미학

인류의 탄생 이래로 이들이 주체가 되어 영위하는 삶의 층위를 중심으로 볼 때, 그들의 역사는 자기 존립을 증명하는 척도이자 각기 다른 시공에서 펼쳐 온 당대의 존재를 정의하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역사는 인간 행위의 진행형 기록물로서 그 기록의 주체를 결정토록 하는 특정한 사건들로 인해 사실로서 남겨질 것인지, 아니면 그러할 수 없는 소실의 운명으로 무엇을 처하도록 할 것인지를 판단 받는다. 역사는 그렇게 인류세(인류세, Anthropocene)를 출범시켰다. 인간은 지구라는 행성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일부로 환경의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시대를 전개해 간다. 따라서 인간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둘러싼 모든 조건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발전과 퇴행의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인류는 생명의 기원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형성해 왔다. 지금의 상황 이전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로 역사는 작금의 현상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까닭이다. 논리적 관점에서 역사는 실제 일어난 사실로부터 자연 과학적 그리고 철학적 대상의 원인을 뜻한다. 이 귀결에 대한 이유는 무엇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무엇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므로 양상이나 사실 존재로서 과거, 현재, 미래의 인류는 제 역사를 끊임없이 축적하거나 발굴하려 하는 것일 테다. 이 같은 관점은 애초에 '나'라는 개별의 자아가 이뤄온, 나아가 주체가 또 다른 주체들과 맺어 온 상호 관계성 그리고 그것이 조장하는 사회 시스템의 형태를 인식하는 하나의 바탕이다. 혹은 재귀적으로 역사라는 걸 어떠한 방식으로 대할 것이며, 그로부터 어떤 시간과 공간의 인식이 창출될 수 있는지를 시사하는 것도 바로 역사의 범주를 이루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주체를 역할 게 하는 세계, 그와 더불어 주체를 호명하는 타자의 존재로부터 비로소 자아의 정체성을 규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역사는 현재를 가능하게 한다. 다만 역사적 가능성이란, 특정한 진영의 정치적 노선을 반드시 승계한다는 걸 뜻하지는 않는다. 해당 명제의 역 또는 부정의 경우도 가능성의 논의에 분명 포함되는 연산의 유형이기 때문이다.

역사학자 E. H. 카(Edward Hallett Carr, 1892-1982)는 “역사란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의 멈춤 없는 상호작용 과정, 현재와 과거 사이의 영속적인 대화”라 했다.¹ 역사에 증거가 있다면 그건 바로 유물(遺物)이 될 테다. 유물은 유적(遺跡)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스케일의 인류가 남긴 잔존물을 지칭하는 용어로, 발굴의 행위를 수반하는 이 유물의 존재는 E. H. 카의 말처럼, 서로 이질한 시공의 차원들 사이를 교통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다. 그것에 대한 고고학적 정의가 그러하듯, 일정한 사적 가치를 부여받은 구체적 기능을 하는 문화적 사실을 집약한 일종의 대상물(objet)로서 유물은 사물이자, 특정한 사실(fact)이며, 어떤 인상(nuance)이기도 하다. 이렇듯 다각적인 측면에서 유물은 역사를 입증하는 사료다. 이러한 공적 책임으로 인해 유물은 종종 재현되는 것이다. 워낙에 후과를 주의해야 하는 물건인 터라 철저한 관리가 따른다. 하지만 어떤 필요에 의해 유물이 재현된다는 것은 사회, 정치, 윤리, 문화적으로 원본의 것과는 다른 새로운

¹ E.H. 카, 김택현 옮김, 『역사란 무엇인가』, 까치, 2023, p. 46.

맥락을 형성할 기대가 있다는 점에서 이 유물 재현의 수행은 유의해야 할 무엇으로 보통 인식되기 마련이다. 예술, 그것도 현대 미술의 영역에서 그와 같은 유물이 재현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최은철은 이처럼 그 자체로 논란의 여지를 함의하는 유물 재현을 본인 작업의 주요한 방법론으로 취한다. 다만 유물의 외적 형상 자체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그 내적 속성을 표상하는 것을 표기하려 한다는 점에서 작가의 작업은 일반적 유물 복제 행위와는 분명 구별된다. 그는 그 미적 실천으로서의 유물 재현에 있어 나름의 고증을 선제하지만, 그 정도의 너비나 깊이가 역사학이나 고고학의 학술적 범주가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것과 다른 방향성을 내재한다. 미시적 배울의 서사에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를 가르는 시차를 사이에 둔 무작위의 공간, 그를 중심으로 구축되는 체계를 곱씹고자 최은철은 유물을 소재로 삼는다. 이로부터 작가의 작업은 그가 무슨 유물을 포집하는지, 그렇게 포집된 유물의 형상을 어떻게 표시할 건지, 나아가 해당 유물의 조우하는 이들로 하여금 어떤 집단적 정황을 형성하게 하려는 지에 이르는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공적 이해 과정을 추동한다.

최은철의 작업은 유물을 닮으려 하며 제 가치를 이룬다. 특징적인 것은 그가 특정한 지역이나 시기를 기준하는 어떤 사적 표지로 작품이라는 유무형의 틀을 조직함에 있어 소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작가는 다층의 문화를 유연하게 교차해 내면서 역사를 상징하는 식의 유물감을 조성한다. 때로는 제토, 성형, 건조, 장식, 초벌과 재벌의 공정을 통해 고대 한반도 일대의 토기 형상을 좇아 직접 흙으로 빚고 구운 도자를 통해, 때로는 특수하게 상온을 견디는 설탕 입자들을 갖고 만든 고대 서양의 조각이나 공예품 형상의 차용을 통해 ‘유사-유적(Pseudo-Ruins)’ 발굴의 현장을 꾸민다. 흩뿌려진 토지가 자아내는 가짜 현장의 무대에 연출된 ‘유사-유물(Pseudo-Relics)’의 작품들은 그의 작업을 대하는 관람 주체들의 심상을 혼란하게 한다. 그것이 유물이나 유적의 원본인가 아닌가 하는 걸 판정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며, 오롯이 역사적 사건의 증거물로서 기록의 당대적 의미를 시의적 현상의 맥락으로 이전한다. 어제의 유물은 오늘의 계기가 된다. 최은철의 유사-유물로 인해 역사의 속성은 예술의 층위로 인해 현실의 축조에 본래의 목적에 비해 적극적인 개입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동기화형 사유를 작동케 하는 심리적 표현이자 그의 조형은 동인(drive)으로서 목표 지향적 활동의 작가적 태도를 시사하는 한편, 다시금 현실 세계에 신화적 수정의 확률을 발아토록 한다. 심지어 합성된 현존의 이미지로서 직조된 파편의 유물들은 어떠한 실재로부터도 무관함을 유지함으로써 마침내 유관한 자의의 관계망을 이룩한다. 풍경도, 건축도, 유적 또는 유물도 아닌 것이 미술의 양식으로 승화하면서 범주의 확장이 발생한다. 마치 박물관의 소장품이 백과사전식 인덱스의 징후로 전환되면서 언어적 유희의 수행을 통해 그제야 기표(significant)와 기의(signifié)의 분리 가능성이 깨어난다. 더불어 일반화의 전략을 사적 오브제에 투영하면서 그 자체로 내용과 형식 사이의 단일한 대응 구도에 균열을 낸다. 이러한 갈라짐은 단지 이상의 개념이 응집된 물적 단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재구성하고, 또한 그 성질을 재편해 내기에 달한다.

이번 <황야로 도주>(부천아트벙커 B39, 2023)에서 작가가 선보이는 영상, 동명의 작업 <황야로 도주: 삼쌍단지>(2023)는 흥미롭다. 작가는 유사-유물의 작업을 조형하고서, 그것을 유사-유적의 형태로 연출하는 것에서 한 발짝 나가 그렇게 만들어진 가상의 유물을 현실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연루시킨다. 최은철이 상정하는 현실의 시공은 바로 황야다. 사전적으로는 인간의 활동으로 개간되지 않은 환경을 미학적으로는 공포와 경외의 대상으로서 이 자연을 칭호하는 황야의 개념을, 그는 물질 중심주의로 황폐해진 현대 도시의 삭막함으로 치환한다. 것처럼 개발 일변도의 문명 가속화로 점철된 현대인의 삶의 터전을 황야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근거로서 작가는 공사 현장에서 발굴된 유물을 떠올렸던 거다. 작가는 그렇게 발굴된 유사-유물을 다시금 삭막해진 현대 도시, 즉 황야로 돌려보낸다. 유물을 만들어 적당한 미지의 개발 현장을 찾아 이를 묻는다. 언젠가 실제로 발견될지도 모를 흔적으로서의 유물을 이때에 새긴다. 최은철은 이 일련의 과정을 기록했고, 이러한 그의 미적 실천은 현재와 과거를 잇는 매개의 연결고리를 생성한다. 그리하여 이 새로운 상관관계는 미래를 향한 의지의 발현을 더는 잠재태의 영역에 묻혀 있도록 내버리지 않고 비로소 바깥의 세상으로 파헤쳐 올려두었다.

장진택(독립기획자)